

전문지를 활용하라!

92년 5월15일, 「화학저널」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화학저널」은 화학산업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창간돼 업종간·업체간 이견을 조정, 중립적 의견을 제시해 주며, 해외의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매체 수문장(Media Gatekeeper)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화학저널」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신소재·정밀·무기화학·플라스틱·엔지니어링·화학기계·기기 등 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가격·투자·수급정보는 물론 해외의 기술개발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게재, 국내 화학산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1년이 지난 작금에 「화학저널」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하며, 화학산업계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화학저널」은 화학산업의 여론형성에 주력, 어떤 주어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상당수의 의견을 업계의 누군가를 대신해 발표·종합하고, 의견들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의견일치가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유도되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기에...

그러나 한국 화학산업은 겁이 많아 일본이 먼저 알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회사의 운명이 걸린 최대 대외비인양 움켜쥐고 몸을 추스린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위기감은 해외언론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도하고 있으며, 정밀화학·무기화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시장 구도에 짜여진 단편적 조각에 불과, 그들의 계획하에 수급·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소재산업은 더더욱 다국적 기업의 기술횡포로 그들이 주는만큼만 생산이 가능, 극단적으로 컴파운딩만 하라고 하면 컴파운딩만 하고, 완제품만 팔라고 하면 완제품만 팔아야 한다.

한국 화학산업의 위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국 화학산업이 자료 및 정보관리가 철저,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일까?

여론을 이끌어가는 업체·협회·전문지조차 없고, 정보·의견 교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존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이 순조로웠기 때문일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각 업종이 스스로를 보호·관리하는 협회를 결성, 생산·판매 실적 등 각종 실적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전문지에 이들 실적을 분기별로 게재하는데 주저치 않는다.

그러한 이들이 정보가 유출되고, 업계가 사분오열되어 무분별한 신증설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적 작업은 시장 등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제성을 검토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 화학산업의 작태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안위적 태도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 화학산업은 다시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화학산업의 새로운 출발대열에 「화학저널」도 출발 신호음 소리와 동시 질주를 위해 나란히 섰다.

아울러 재출발에 앞서, 화학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질서있는 관계유지를 위해 김정기 교수의 새 PR원론중 홍보원(취재원)이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들려주고 싶다.

「정직하게 대하라」 언론인들은 비판적이고, 뉴스를 알아채는 그들의 감각은 유난히 발달해 있다. 따라서 홍보원(취재원)이 속임수를 쓰거나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회피술수로 뉴스를 막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그것은 언론인의 맹렬한 반발을 산다.

「뉴스를 제공하라」 뉴스는 쉽게 사라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치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걸하거나 트집잡지 말라」 기사화해 달라고 구걸하거나 기사취급이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사사장(死藏)을 요청치 말라」 기사를 사장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취재원(홍보원)에게는 없다. 이런 요구는 언론인에 대한 모욕이며, 이는 취재원에 대한 언론인의 신임을 배반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된다.

「보도자료의 마구잡이식 배포를 피하라」 매체는 각각 개별적 특성이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만이 채택된다.

한국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학저널 1992/5/15>